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권리

-정보복지의 관점에서-

최선열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환경변화

최근 민주당 386 국회의원들의 5·18 전야 술자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 사건은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자리를 뜬 임수경 씨가 “제3의 힘”이라는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모임의 부적절함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커졌다고 한다. 문제의 글은 단 몇 시간 올려졌다가 관리자에 의해 곧 삭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게시판을 본 몇몇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자신들의 시각에서 구성하여 여러 사이트에 올림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오마이 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임수경 씨를 비롯하여 사건에 개입된 사람들이 그 여파에 당혹해하는 사이, 이 사건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나 여론재판으로 내몰린 상황이었다. 인터넷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해준 사건이다.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과 거친 표현이 난무하는 시민기자들의 기사가 게이트 키텅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이버 스페이스에 올려지면 수많은 독자들이 뛰어들어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공방을 펼친다. 웹 사이트의 게시판, 토론장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사실왜곡, 편파적인 의견, 그리고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에 실망을 하게 된다. 수많은 불확실한 정보가 정보의 바다에 떴다 사라지는가 하면 계속 치고 받으면서 여론을 몰고 다닌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매달려 있는 현실에서 잠깐이나마 떴던 정보들은 누군가에 의해 수집되고, 가공되고, 다시 올려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놀라운 속도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기도 하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 사실여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정보적 가치가 평가절하 또는 절상되기도 한다.

언론활동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공공 커뮤니케이션으로서 훈련받은 전문가들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보급으로 인식해왔다. 그렇다면 사이버 스페이스에 난무하는 개인 저널리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자직에 대한 일정한 훈련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이 관행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단계의 편집, 가공단계를 거쳐 뉴스로 만들어지는 조직활동인 전통적인 저널리즘 패러다임에 대한 인터넷의 도발인 것이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언론활동으로 봐야하는지 업계나 학계는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미디어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사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매체 환경은 이미 훨씬 많이 변했고 계속 가속도가 붙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와 과급효과는 이용자들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이며,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기술은 문자, 그림, 소리 등 성격이 다른 정보들을 디지털 부호로 변환, 압축시켜 자유자재로 융합, 전송하는 기술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매체간에 존재하였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터넷처럼 기존 매체들의 장점을 복합적으로 살린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고 있는 융합미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디지털 방송이 활성화되면 고화질, 다양한 부가서비스, 첨단 쌍방향 방송 서비스를 갖춘 100여 개의 채널까지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변화의 주체가 기술, 사업자, 정부이며, 이용할 사람들은 사실상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신문인지, 방송인지, 컴퓨터인지, 전화인지 알 수 없는 새로운 융합미디어를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누구를 위해서 왜 디지털 기기로 바꾸어야 하는지, 과연 디지털 단말기들이 그들에게 폭넓은 선택, 상호작용, 심층적 정보를 줄 것인지 수용자들은 잘 알지 못한다. 매체융합은 소비자에게 편리성, 효율성, 융통성을 줄 수도 있는 반면에 정책이나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는 큰 혼란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적 또는 법리적 해석의 근거가 되었던 많은 요인들이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없어졌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깨어있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수상기 구입, 유료서비스에 지출해야 하는 수신 비용 등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채널이 많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해도 방송의 공공성이 계속 지켜질 것인지, 정보산업의 기업화로 상업성만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결국 가전제품업자들이나 방송사들만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닌지 다양한 쟁점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기술, 정책, 법리적 관점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반 수용자들에게 지나치게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 논의는 수용자의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의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수용자와 관련된 최근의 쟁점들인 인터넷 저널리즘, 디지털 방송, 통합방송법을 분석해보고 정보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이 문제들을 논의하려고 한다. 수용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이유는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수용자의 권익찾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관련된 쟁점들을 제기하면서 시민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인터넷 저널리즘: 허와 실